

# 초등사회과를 위한 현장학습 코스의 개발

## - 제주도 화북마을을 사례로 -

Development of Field Learning Course for Elementary Social Studies

- The Case of Hwabuk Village in Cheju City -

정 광 중(제주교대 교수)

### < 목 차 >

- I. 서론
- II. 초등학교 사회과와 현장학습의 중요성
  - 1. 현장학습의 개념 정리
  - 2. 현장학습의 중요성
- III. 현장학습 장소로서의 화북마을의 특성
  - 1. 화북마을(화북동)의 성격
  - 2. 유적(지)과 문화재의 분포 실태와 특징
- IV. 화북마을의 현장학습 코스와 특징
  - 1. 현장학습 코스와 특징
  - 2. 교수-학습 도움 자료명과 입수 문제
  - 3. 현장학습용 학습지의 작성
  - 4. 개발된 현장학습 코스의 문제점
- V. 요약 및 결론

## I. 서론

오늘날 한국의 초등학교 교실내 수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한 교사에 의해서 모든 교과 수업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주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업형태에서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함양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은 물론, 개개인의 발전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하기도 대단히 어렵다.

초등학교의 경우, 흔히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습방법과 교육자료(기자재)를 활용해야만 교과별 학습목표는 물론 초등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진부한 논의가 될 수도 있으나, 간단히 요약하자면 교육부 → 시·도 교육청 → 학교(지역사회) → 교사에까지 연결되어 나타나는 구조적인 모순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학교교육 중 사회과 교과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예의주시 하면서 세계화 시대 혹은 지구화 시대에 걸맞는 시민적 자질과 인격 양성을 상위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로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과 교육목표의 설정과 함께 교육내용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새삼스럽게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학교교육의 교육내용 선정에 대한 작업은 가령 한사람의 연구자나 학교 단위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직접적인 걱정거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엄선해서 선정된 사회과의 교육내용을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학습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지역사회나 학교, 혹은 교사의 재량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중요한 과제로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장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학습내용을 계획하고 단계별로 각종 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면, 언제나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과의 교수·학습방법 중 현장학습을 선택하여 실행할 경우에는 교사에게 부여되는 과제가 한층 과중한 짐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의 현장학습은 현실적으로 소풍이나 시설 방문 및 견학, 박물관 관람 등이 주가 되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방향의 현장학습을 실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현장학습 관련정보나 자료들을 책자형식으로 작성한 후 일선학교로 배포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sup>1)</sup>.

1) 제주도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다음의 문헌을 참고로 들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 1995, 『우리 고장 현장학습 프로그램』, 제주도교육청, 415p.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관련자료나 정보가 아주 미미한 상황이며 동시에 효율적인 현장학습에 대한 방법론이 항상 뒤따르는 관계로, 각급 학교에서는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초등학교의 현장학습에서 가장 큰 걸림들은 경제적인 비용, 안전사고 발생문제, 보조교사의 확보(인력) 등과 관련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습자가 저학년일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요소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각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와는 별도로, 최근 초등학교의 경우는 '책가방 없는 날'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한 현장학습 혹은 체험학습 등, 야외에서의 학습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적으로 착실히 운영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책가방 없는 날과 특별활동 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이나 현장학습 코스들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로 지원하는 작업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의 사회과 관련 학습과정에서 현장학습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제로 하여, 일선학교와 교사들의 어려운 입장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시범적인 현장학습 코스를 개발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장학습 장소가 '제주시 화북마을(화북동)'이라는 점에서, 일단 학습대상은 주로 제주시내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전제로 시도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목적을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 현장학습의 개념을 좁은 의미에서 한정시켜 다루되, 가능한 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활동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 지역내에 분포하는 현장학습 장소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코스화하였다.

아울러, 개발된 현장학습 코스에서의 시간활용은 근본적으로 교실내 수업에서의 활용시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장학습 코스는 실제로 설정된 시간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에는 다소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담당교사가 현장학습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미리 현장답사를 통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현장학습 코스가 학교별로 또는 학년별로 다소의 수정을 통하여, 제주시내의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비록 개발

된 현장학습 코스가 제주도 제주시라는 특정지역에 한정되고 있기는 하나, 본고에서의 개발 방법을 참고로 해서,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도 가까운 지역자원을 활용한 현장학습 코스를 많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장학습 장소인 제주시 화북동(화북 1동)에는 역사적 유적(지)(고려·조선시대의 비석, 성, 연대, 제단)<sup>2)</sup>과 자연적 환경요소(포구, 해안 용천수) 등이 비교적 협소한 공간내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초등학교 사회과 관련 현장학습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

## II. 초등학교 사회과와 현장학습의 중요성

### 1. 현장학습의 개념 정리

먼저 현장학습의 중요성을 논하기 전에, 지금까지 인식되고 있는 현장학습의 개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그 이유는 현장학습이란 용어 자체가 교육현장에서는 상당히 폭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주장하는 논점이 다소 흐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현장학습의 개념과 기본적인 틀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그에 따른 현장학습의 중요성이나 문제점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권오정은 “어린이들이 교실을 떠나 사회사상을 관찰, 조사 혹은 그 사상과 관련있는 사람과 면접하는 등의 학습활동”(p.152)을 현장학습이라 규정하고 야외관찰, 야외조사, Field Work 또는 Field Studies의 용어와 동일한 개념<sup>3)</sup>이라 지적하고 있다. 정병기 외는 “현장학습(Field Learning)은 학습의 장을 사회적인 사실과 현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장으로 옮겨, 그 현장에서 견학, 면접, 조사, 관찰, 캠핑 등의 실제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학습방법”(p.401)이라고 정의하면서, 넓은 의미에서는 교실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학습<sup>4)</sup>이라고 추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2) 현장학습 대상으로 설정된 역사적 유적(지) 중에서 1999년 9월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3) 권오정, 1985, 「사회과의 학습형태」(권오정 외, 『사회과교육(I)』,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415p.); pp. 142-159.

그리고 오영태의 경우는 “현장학습(Field Work)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실제의 장면에서 직접 관찰하거나 조사하면서 전개하는 학습방법<sup>5)</sup>”(p.255)이라 함으로써, 앞서 제시한 연구자들의 개념과 거의 비슷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에 몇몇 연구자들이 정의한 현장학습의 개념은 상당히 넓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연중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운동회, 수학여행, 소풍 및 유적지(고적) 답사 등도 전부 현장학습의 범주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현장학습의 개념을 좁은 의미로 한정시키고, 구체적인 교과 교육학습과 관련되는 측면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즉, 현장학습의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여 한정시키고자 한다. 하나는 학습하는 장소의 문제이다. 즉, 현장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가급적 학교로부터 가까운 거리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부터 현장까지는 모두가 도보로 이동할 수 있거나 혹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단 몇 십분 내에 도착하여 재빠르게 학습활동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학습하려는 학습대상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학습대상은 주어진 공간안에서 학생들이 직접 발견해 내거나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유형의 학습 대상물이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령 학습활동을 행하는 학생들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저학년, 중학년 및 고학년 중 특정 학년의 학습내용과 관련지을 수 있다면, 매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현장학습의 개념은 학습장소와 학습대상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가까운 지역사회에 항상 존재하는 지역자원으로서, 필요할 경우에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환언하면, 교사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현장학습에서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현장학습 코스의 개발은 미리 계획된 하나의 주제를 토대로 공간적인 이동과 학습대상의 다양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흥미롭고 적극적인 학습의욕을 이끌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된다.

4) 정병기 외, 1995, 『신간 사회과교육론』, 교육출판사, 696p.

5) 오영태, 1996, 『사회과교육론』, 형설출판사, 501p.

## 2. 현장학습의 중요성

현장학습의 중요성은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충분히 강조되어 제시되고 있다. 교육과정 상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근거를 찾는다면, 「사회과의 교수·학습방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2], pp.170 -171)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과의 교수·학습방법」 중 '사' 항에는 “탐구 지향적 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탐구 주제 또는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교수 기법과 활동을 활용한다. 탐구 및 문제 해결 활동에 적합한 교수 기법으로서는 질문, 조사, 토의, 관찰 및 면담, 현장 견학, 자원인사초빙, 모형제작, 실험, 역할놀이와 시뮬레이션 게임, 인물학습, 사료학습 등을 활용한다.”라고 명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의 성격부분에서도 현장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사회과의 성격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6).

“사회과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현상에 관한 지식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판단 및 의사 결정력 등의 신장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수준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지향한다. 그리고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지역성과 시사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의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내용을 토대로 부연하면, 가까운 지역사회를 효율적인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으며 또한 학생시절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능동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된다.

6) 교육부, 1997, 『초등학교 교육과정』(제1997-15호, [별책 2]), pp. 149-150.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최근의 연구 성과에서도 ‘지역사회’나 ‘향토’ 또는 ‘향토자원’ 등의 개념을 기저에 두고, 현장(현지) 학습이나 혹은 지역학습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논고들<sup>7)</sup>이 일부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는 지역사회나 향토사회를 배경으로 한 현장학습의 현실태를 비판하고 그 중요성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된다. 그러므로,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틀과 방향이 초등학교의 현장학습에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의 차후에는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지리(과) 교육에서는 현장학습이 야외학습이나 현지관찰학습 등의 용어와 같이 쓰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학습방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리(과) 수업에서 현장학습이 강조되는 이유를 보면, 첫째로 지리적 사상(현상)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 둘째로 학생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과 시야를 넓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사상(사실)의 상호관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셋째로 여러 사회적 사상(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 넷째로 교과와 관련되는 학습문제나 또는 교과 이외의 학습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되는 학습효과 때문이다<sup>8)</sup>. 따라서, 이러한 학습효과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현장학습이 각 학년마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7)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논고들을 지적할 수 있다.

- ① 하태기, 1992, 「향토학습을 통한 향토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p. 1-120.
  - ② 최창석, 1994, 「향토 단원의 현지 학습 방법」,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p. 1-99.
  - ③ 권이중, 1996, 「현장학습의 실태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p. 1-126.
  - ④ 강동우, 1997, 「경주 지역 문화재를 중심으로한 사회과 지역화 학습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p. 1-123.
- 8) 이 찬, 1975, 「지리과 학습지도의 이론과 사례」 (이 찬외, 1975, 『지리과 교육』, 한국능력개발사, 352p.), pp. 105-160.

### Ⅲ. 현장학습 장소로서의 화북마을의 특성

#### 1. 화북마을(화북동)의 성격

화북마을은 행정구역상 제주시 화북동으로 면적은 2.28km<sup>2</sup>이며, 제주시의 19개 행정동 중의 하나이다. 서쪽으로는 건입동과 이웃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제주시의 끝마을인 삼양동과 이웃하여 있다[그림 1]. 그리고 구 시가지의 중심부<sup>9)</sup>로부터 화북동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다. 화북동은 보통 화북 1동과 화북 2동으로 구분되는데, 화북 1동은 주로 벌랑, 별도(화북), 곤흘마을이라는 3개의 자연취락으로 구성되며, 해안가의 포구와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화북 2동의 경우는 일주도로를 사이에 두고 내륙쪽이라 할 수 있는 남쪽에 위치하며 주로 거로, 황사평, 부록마을 등이 중심이 된다<sup>10)</sup>.

지형적으로는 마을의 서쪽 해안가에 별도봉(136m) 오름(기생화산)이 위치하여 상징물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으며, 화북천(별도천, 또는 배릿내라고도 함)은 화북동의 서쪽 끝을 가로지르면서 건입동과 경계지점을 이루는 지표가 되고 있다. 이 별도천은 건천으로서, 보통때에는 거의 물이 흐르지 않고 여름철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강수현상이 있을 때에만 흐른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효율적인 이용을 기대할 수 없는 하천이다.

1998년 시점에서 화북동의 세대수와 인구수를 보면 3,546세대에다 인구수가 총12,258명으로, 이중 남자가 6,120명, 여자는 6,138명으로 나타난다<sup>11)</sup>. 이 수치를 10년 전인 1988년과 비교해 보면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sup>12)</sup>. 이러한 배경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주시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도시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화북동 지구가 제주시내의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조성되었기 때

9) 현재, 제주시는 1980년대 초에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제주(신시가지)와 조선시대를 걸쳐며 번성한 구제주(구시가지)로 양분된다. 구시가지의 중심부는 조선시대에 중요한 관아건물과 부속건물들이 위치했던 관덕로, 중앙로 및 동문로 주변이라 할 수 있다.

10) 화북동운영위원회, 1991, 『화북동향토지』, p. 166.

11) 제주시, 1998, 『제38회 통계연보(1998년도)』, 제주시, p. 48.

12) 1988년 시점의 세대수와 인구수를 보면, 세대수가 1,618, 인구수가 6,527명이다. 이중 남자가 3,281명이고 여자가 3,246명이다(제주시, 1988, 『제28회 통계연보(1988년도)』, 제주시, p. 23).



문이다. 그리고 주택단지의 조성과 더불어 제주시의 사업 일환으로 화북공업단지가 거로마을 부근으로 확정·신설되면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화북마을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상당한 지역적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sup>13)</sup>

한편, 화북(禾北) 마을은 상당히 역사가 깊은 고촌이라 할 수 있다. 화북마을은 과거에는 별도(別刀)라는 지명과 함께 쓰여져 왔는데, 이 두 지명은 각각 고려 원종 11(1270)년과 고려 충렬왕 26(1300)년에 처음 등장한다<sup>14)</sup>. 따라서 설촌 역사는 적어도 600~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시대로 들어오면, 화북마을은 제주성밖의 첫 번째 마을인 동시에 포구가 발달하여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으로 성장하게 된다<sup>15)</sup>. 다시 말해,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화북포(별도포)는 제주목(濟州牧)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던 관계로, 건입포(현, 제주항) 및 조천포와 더불어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관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13) 화북주거지역은 제주시의 사업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1차 사업기간은 1984년 1월~1990년 8월까지로 79,264평 면적의 총사업비 21억1,900만원을 들여 완료되었다. 화북공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제주시의 사업일환으로 시행되었는데, 사업기간은 1984년 1월~1987년 10월까지이며 총면적 87,286평에 총사업비 23억 3,700만원을 들여 완성되었다. 그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2차적으로 주거지역과 공업단지를 2차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결국 이 두가지 사업은 화북동을 크게 변화시킨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화북동운영위원회, 1991, 『전계서』, pp. 257-263.).

14) 화북동운영위원회, 1991, 『전계서』, p. 27.

15) 오성찬 외, 1989, 『유서깊은 옛 포구 화북리(‘제주의 마을’ 시리즈 ⑨)』, 도서출판 반석, p. 33.

[그림 1] 화북마을(화북동)의 위치와 부근의 현장학습 장소  
(유적·문화재, 박물관, 자연환경요소)



## 2. 유적(지)과 문화재의 분포 실태와 특징

화북마을의 구석 구석에는 오랜 역사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학습요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본고에서 현장학습 대상으로 선정된 것들 중 비석거리, 화북진성, 해신사, 김정 목사의 봉공비 등은 바로 조선시대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되는 유적들이며, 그 외에 와가, 포구, 용천수 등은 서민들의 생활과 관련되는 것들로서, 화북마을 주민들의 생활사와 전통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학습자료가 된다.

화북마을에는 이 밖에도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현장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자연적 요소나 민속자료들이 많이 분포한다. 예를 들면, 별도봉(화북봉), 화북천, 4·3 성터, 베릿내 소낭알당, 가릿당, 운동지 영감당, 삼사석, 화북공업단지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들은 비록 본고에서의 현장학습 코스에서는 제외되고 있지만, 자연환경의 특징이나 서민들의 생활과 신앙, 제주도 공업의 특징 등을 학습하는데 중요한 현장학습 관련 장소들이다.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학습요소로서 별도봉과 화북천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자연환경 구성요소인 ‘오름’과 ‘건천’을 학습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별도봉을 통해서도 오름의 형성 원인과 형태, 구성물질, 오름위에 자생하는 식물 등을 학습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화북천을 대상으로 해서는 제주도 하천의 특징, 하천 바닥의 형태, 용암의 흐름 방향,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하류지점에서의 여러 가지 퇴적물 등을 학습할 수도 있다. 또한, 거로 마을 부근에는 1948년에 일어났던 제주 4·3 사건의 유적지인 4·3 성터가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당시 서민들의 삶을 지키려 했던 처절한 흔적과 숭고한 정신을 배울 수가 있다.

운동지 영감당, 가릿당, 베릿내 소낭알당은 제주 서민들의 전통적인 신앙체계와 생활상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 초등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 될지 모르나, 집안 어른들의 오랜 세월을 걸쳐 숭배하고 따르던 대상이었던 만큼 쉬운 용어나 단어를 구사하여 설명한다면,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더없이 좋은 자료들이다.

화북공업단지의 경우는 현재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에 등장하는 산업학습 내용<sup>16)</sup>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친숙한 학습현장 장소가 될 수 있다. 제주도 공업의 특징이나 제조업의 현장 모습, 각종 물건이 만들어지는 기계

의 조립과정, 오염발생의 현장 등 여러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접근한다면, 나름대로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IV. 화북마을의 현장학습 코스와 특징

### 1. 현장학습 코스와 특징

#### 1-1. 기본적 조건

본고에서 현장학습의 코스를 개발하는데 기본적 조건은 ① 현장에서의 전체 학습시간 ② 학년별 학습내용(학습내용의 난이도) ③ 학습량 ④ 전체의 이동거리 ⑤ 체력 ⑥ 효율성 등이다. 코스화는 이들 기본적 조건을 신중히 고려한 위에 학습대상이 분포하는 지점과 지점을 연계시켜 <표 1> 과 같이 전체 8개의 코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A형의 경우는 각 학년별로 비교적 많은 학습대상을 선정하였는데, 그 배경은 교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주로 관찰학습을 하도록 하는 형태로서 설정된 것이다. 다시 말해, 각 학습대상마다 학생들이 조사활동을 전개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가벼운 마음으로 눈으로 관찰하는데 역점을 두어 설정한 코스라 할 수 있다.

그리고 B형은 상대적으로 각 학년별로 교실내 학습의 연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각 대상별로 조사활동을 행할 수 있도록 설정된 코스이다. 물론,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어떤 현상(경관)이나 사실에 대하여 한번에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일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평상시의 교실내 수업시간인 40분을 전제로 설정한 것도 아니며, 조사활동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학습대상별로 선택성과 난이도를 항상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대상(횟수)이 다소관계나 조사시간의 부족 등에 대한 문제는 교사의 재량과 실천시의 상황에

16) 3학년의 경우는 1학기용 교과서에서 제 2단원 고장사람들의 생산활동 중 제 2주제의 “필요한 것들의 생산”과 관련되며, 4학년의 경우는 1학기용 교과서에서 제 2단원 우리 시·도의 생활 중 제 1주제인 “산업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8개 유형의 코스는 3~8개의 학습대상(장소)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학습시간, 학습대상 학년 혹은 학습자들의 인원수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림 2~4]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본고에서 연계시키지 않은 학습대상도 많이 있다<sup>17)</sup>. 그렇지만, 만약에 같은 유형의 학습대상을 서로 비교해 보는 학습일 경우에는 [B-1] 코스와 같이 조절하여 학습에 임할 수도 있다.

---

17) 이들을 제외시킨 이유는 거리적으로 다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며, 연계시켰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동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학습량도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표 1> 현장학습 코스 유형

유형		코스	대상 학년	학습 시간
A	A - 1	① 금돈지 포구(5분) → ② 김정 봉공비 (10분) → ③ 해신사(10분) → ④ 화북진성(5분) → ⑤ 해안 용천수(2곳, 10분) → ⑥ 김석운 와가(10분) [이동방향] 포구에서 시작, 중마을 주택가의 큰 길 쪽으로 이동.	3 학년	50 분
	A - 2	① 김석운 와가(10분) → ② 화북진성(10분) → ③ 해신사(10분) → ④ 금돈지 포구(5분) → ⑤ 김정 봉공비(10분) → ⑥ 영물 머릿개(5분) [이동방향] 중마을 주택가의 큰 길 쪽에서 시작, 두 포구 쪽으로 이동.	4 학년	50 분
	A - 3	① 비석거리(25분) → ② 김석운 와가(10분) → ③ 화북진성(10분) → ④ 해신사(10분) → ⑤ 금돈지 포구(5분) → ⑥ 김정 봉공비(5분) → ⑦ 영물 머릿개(5분) [이동방향] 서마을의 비석거리에서 시작, 중마을 주택가의 큰 길 쪽으로, 다시 두 포구 쪽으로 이동.	5 학년	70 분
	A - 4	① 비석거리(25분) → ② 환해장성(25분) → ③ 해안 용천수(10분) → ④ 화북진성(5분) → ⑤ 해신사(10분) → ⑥ 금돈지 포구(5분) → ⑦ 김정 봉공비(5분) → ⑧ 김석운 와가(15분) [이동방향] 서마을의 비석거리에서 시작, 곤솔마을 해안가 쪽으로, 비포장 소로와 서마을·중마을 주택가의 안쪽 길을 걸쳐 포구 쪽으로, 다시 주택가의 큰 길 쪽으로 이동.	6 학년	100 분
B	B - 1	① 김석운 와가(15분) → ② 김용일 와가 (15분) → ③ 이기숙 와가(15분) [이동방향] 중마을 주택가의 큰 길 쪽에서 시작, 주택가의 안쪽 도로 쪽으로 이동.	3 학년	45 분
	B - 2	① 화북진성(15분) → ② 해신사(15분) → 금돈지 포구(10분) → ④ 김정 봉공비(10분) [이동방향] 포구 쪽에서 중마을 주택가의 안쪽 도로 쪽으로 이동.	4 학년	50 분
	B - 3	① 김석운 와가(25분) → ② 환해장성(25분) → ③ 비석거리(25분) [이동방향] 중마을 주택가의 큰 길 쪽에서 시작, 곤솔마을 해안가 쪽으로, 다시 서마을의 비석거리 쪽으로 이동.	5 학년	75 분
	B - 4	① 비석거리(25분) → ② 화북진성(25분) → ③ 별도연대(25분) → ④ 환해장성(25분) [이동방향] 서마을의 비석거리에서 시작, 서마을과 중마을 주택가의 큰 길 쪽으로, 포구를 돌아 연대(연디) 동산 쪽으로 이동.	6 학년	100 분

[자료 : 현지조사 등에 의해 필자 작성]

<표 2> 학습 대상의 주요 특징과 관련사실

학 습 대 상 명	성격구분	소 재 지	관련시대 (창건시대)	문화재 지정 (지정 연월일)
① 금돈지 포구	포 구	화북 1동, 서쪽 포구	미 상	비지정
② 김정 봉공비	비 (공적비)	화북 1동, 금돈지 포구 옆	조선시대	비지정
③ 해신사	제 단	화북 1동 1621, 금돈지 포구 옆	조선시대 (1820년)	기념물 제22호 (1974. 4. 13.)
④ 화북진성	성 지	화북 1동 1770	조선시대 (1676년)	비지정
⑤ 해안 용천수	용천수	화북 1동, 금돈지 포구 부근	—	비지정
⑥ 김석윤 와가	건축물	화북 1동 1640	1913년	민속자료 제4-1호 (1978. 11. 14.)
⑦ 김용일 와가	"	화북 1동 4230	1918년	비지정
⑧ 이기숙 와가	"	화북 1동 4067	미 상	비지정
⑨ 영물 머릿개	포 구	화북 1동, 동쪽 포구	미 상	비지정
⑩ 화북 비석거리	비(공적· 선 정 비)	화북 1동, 비석거리	조선시대	기념물 제30호 (1976. 9. 9.)
⑪ 환해장성	성 지	화북 1동, 곤홀마을 해안가 / 별도마을 해안가	고려~조선 시대	기념물 제49-2호 (1998. 1. 7.)
⑫ 별도 연대	연대(烟臺)	화북 1동 1537	조선시대	기념물 제20-9호 (1996. 7. 18)

[자료 : <표 3> 의 참고문헌을 토대로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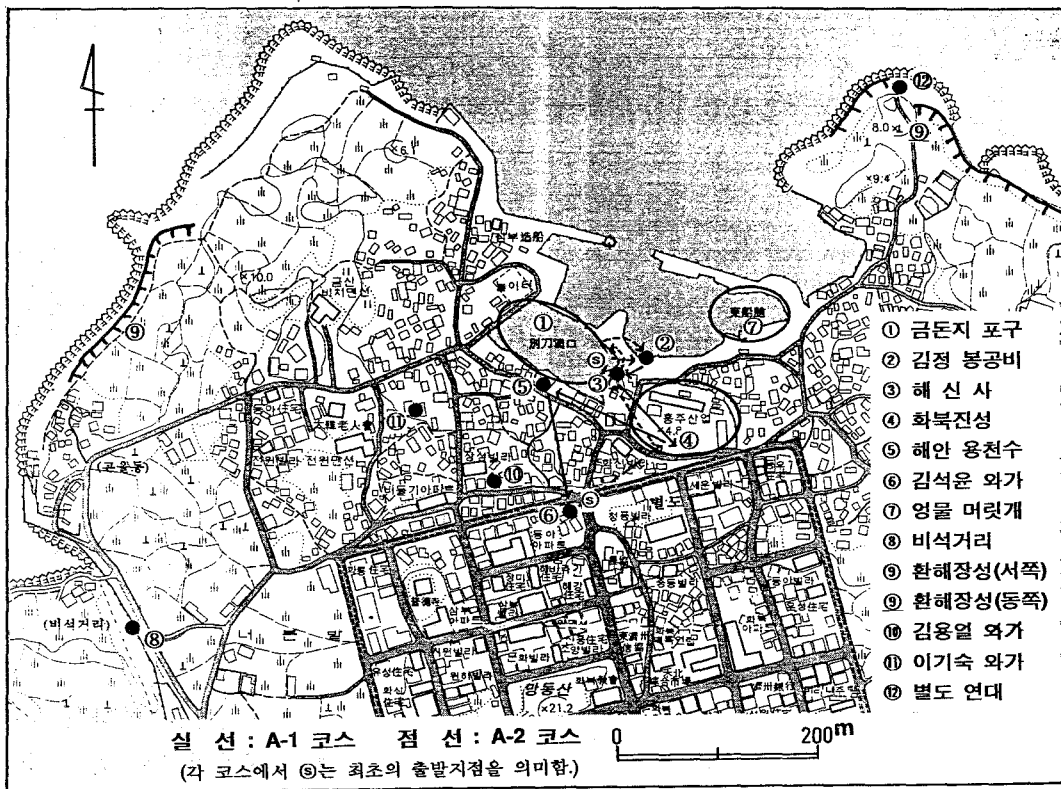
<표 2> 는 학습대상에 대한 주요 특징과 함께 관련되는 사실들을 정리한 것이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표 3> 에 제시한 참고문헌과 관련 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 1-2. 코스별 특징

### (1) A-1 코스[그림 2]

금돈지 포구(지도상에서는 '별도포구'라 표시되어 있음)<sup>19)</sup>를 기점으로 해서 주위의 3개의 역사유적 관련자료와 2개의 서민생활 관련자료를 포함한 코스로서, 시간적으로는 약 1시간 이내로 설정된 학습코스이다. 학습대상이 6개로 다소 많은 구성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공간적으로는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량을 적절히 조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림 2] A-1 코스와 A-2 코스



19) 현재의 화북 포구 중 서쪽에 위치한 포구로서, 조선시대에는 금돈지 포구라 하였다. 오늘날에도 문화재명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금돈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동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코스이다. 즉, 금돈지 포구에서 김석윤씨 와가까지는 불과 150~200m 정도이다. 학습과정에서 가령 교사의 설명을 위주로 한다면 한 장소에서 3~5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나, 여기서는 35~45명 정도로 한

반 학생들 모두가 관찰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금돈지 포구(5분) 외에는 각 장소별로 10분 정도로 산정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정해진 시간내에 여러 장소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학습대상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코스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학습량을 최대한 줄이고, 교사의 간단한 설명을 토대로 학생들 개개인이 세밀히 관찰해보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된다.

### (2) A-2 코스[그림 2]

6개의 학습대상으로 구성하여 4학년을 겨냥한 코스이다. A-1 코스와 비교할 때, 이동거리가 조금 멀고 영물머릿개가 포함된 점이 다르다. 영물머릿개(지도상에서는 '동성창'이라 표시되어 있음)는 현재 화북포구의 동쪽에 위치한 포구를 말하는 것인데, 금돈지 포구와 비교하여 학습하는 것이 좋으며 기회가 닿으면, 지역 주민에게 1960년대 이후의 변화에 대해 들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시간은 두 포구를 5분 정도로 하고, 나머지 각 장소에서 10분 정도 활용하도록 하였다. 학습대상이 비교적 많은 만큼, A-1 코스와 같이 학습대상별로 세밀히 조사하기보다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여, 신기함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학습과정이 필요한 코스이다.

### (3) A-3 코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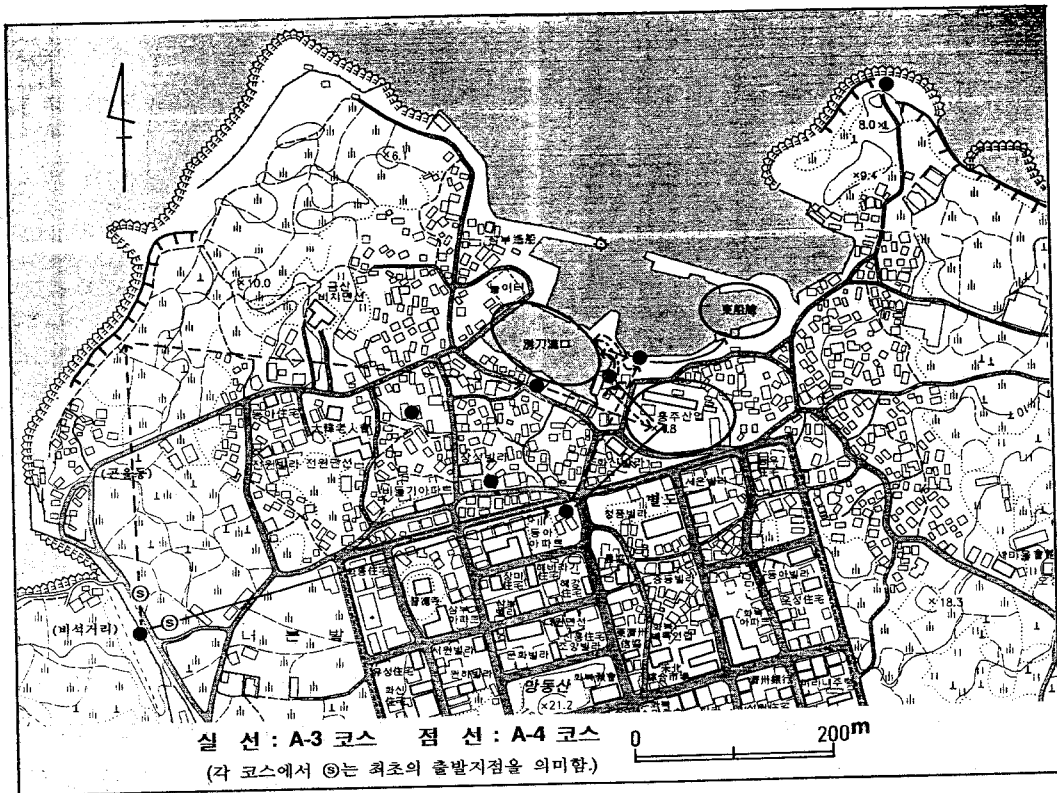
5학년용 코스로서 7개의 학습대상으로 구성된 경우이며, A-2 코스에서 비석거리를 포함시킨 것이다. 비석거리에서 김석윤씨 와가까지의 거리는 약 500m로 다소 멀다. 화북의 비석거리는 13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는 곳인데, 대부분 조선시대에 관리로 부임했던 제주목사나 판관, 또는 조방장의 비석들이다. 따라서 글씨는 한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교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sup>20)</sup>. 특히, 비

20) 13개의 비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의 문헌 중에서도 ㉞, ㉟, ㊱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들 문헌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정광중

석거리와 관련한 학습내용에서는 왜 이곳에 많은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sup>21)</sup>. 시간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한번에 관찰할 수 있는 두 포구와 김정 봉공비를 5분씩 산정하였고, 비석거리는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25분, 나머지는 10분 정도로 해서 전체로는 약 1시간 10분 정도 내에서 들 수 있도록 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학습대상을 1~2개 정도 생략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3] A-3 코스와 A-4코스



21) 이곳은 관리들이 부임받아 별도포(화북포)로부터 제주목(성내)으로 들어올 때나 이임된 관리들이 육지로 향해 떠날 때 지나가는 주요 길목이기 때문이다.

(4) A-4 코스[그림 3]

8개의 학습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제시한 학습대상에서 비석거리와 환해장성을 추가시킨 사례로서 6학년 코스로 설정하였다. 비석거리에서 환해장성(350~400m)까지, 그리고 환해장성에서 해안 용천수(약 500m)까지의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고학년이 아니면 소화해 내기가 어렵다. 환해장성에서 해안 용천수까지의 도로는 비포장 소로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갔던 길을 되돌아 나오는 방법도 있으나, 시간적으로는 더 길린다. 아울러, 성을 학습하고 나서 서마을 주택가내의 좁은 도로를 이용하여 해안 용천수까지 환해장 걸어와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도 많아진다. 이 코스에서는 비석거리—환해장성—해안 용천수까지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비석거리와 환해장성의 경우는 걷는 시간을 포함하여 넉넉하게 25분씩 산정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코스로 하였다. 8개의 학습대상 중 1~2개만을 선택하여, 면밀한 조사활동을 벌이는 학습방법도 괜찮을 것이다.

(5) B-1 코스[그림 4]

앞서 제시한 코스와는 달리 와가(瓦家)라는 한가지 유형의 학습대상 만을 토대로 구성한 예이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3개의 기와집에 대해 외형(지붕과 외벽의 모양과 재료, 출입문 등)이나 내부 구조(방수와 방배치, 방문수와 방문 구조, 부엌형태 등) 등을 세밀히 비교하는 학습방법을 도입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적으로는 대략 한 장소에서 15~20분 정도로 하여 전체 약 45~60 내외로 설정하면 무난하리라 생각된다.

단, 이들 와가에는 현재에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양해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몇 차례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별 문제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단 문제가 있다면, 한 반 규모의 학생들(35~45명) 모두가 한 곳에서 내부 구조를 세밀히 관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그룹별로 시간과 순서를 정하여 관찰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혹은 3개의 대그룹으로 나누어 이동하는 코스를 정한 후 따로 따로 학습에 임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3개의 대그룹별로 한 개의 와가만을 조사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는 교실내 학습으로 돌아와서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할

정광중

것이다.

(6) B-2 코스[그림 4]

이 코스는 좁은 공간안에서 역사적 유적(지)을 중심으로 돌 수 있도록 구성된 코스이다. 그러므로 각 학습대상 별로 상세한 조사학습이 가능하다. 이동거리가 짧은데도 4학년 코스로 설정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단순히 교사의 설명에 의한 학습이라면, 20분 정도로 소화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스케치, 관찰한 사실을 글로 쓰기, 역사적 유적(지)의 특징과 본(느낀) 소감,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안된 것의 차이점 등에 대한 학습활동을 벌인다면, 50-6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해신사의 경우는 내부에 안치된 돌비석('해신지위'라 쓰여져 있음)을 관찰하려면, 사전에 관리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7) B-3 코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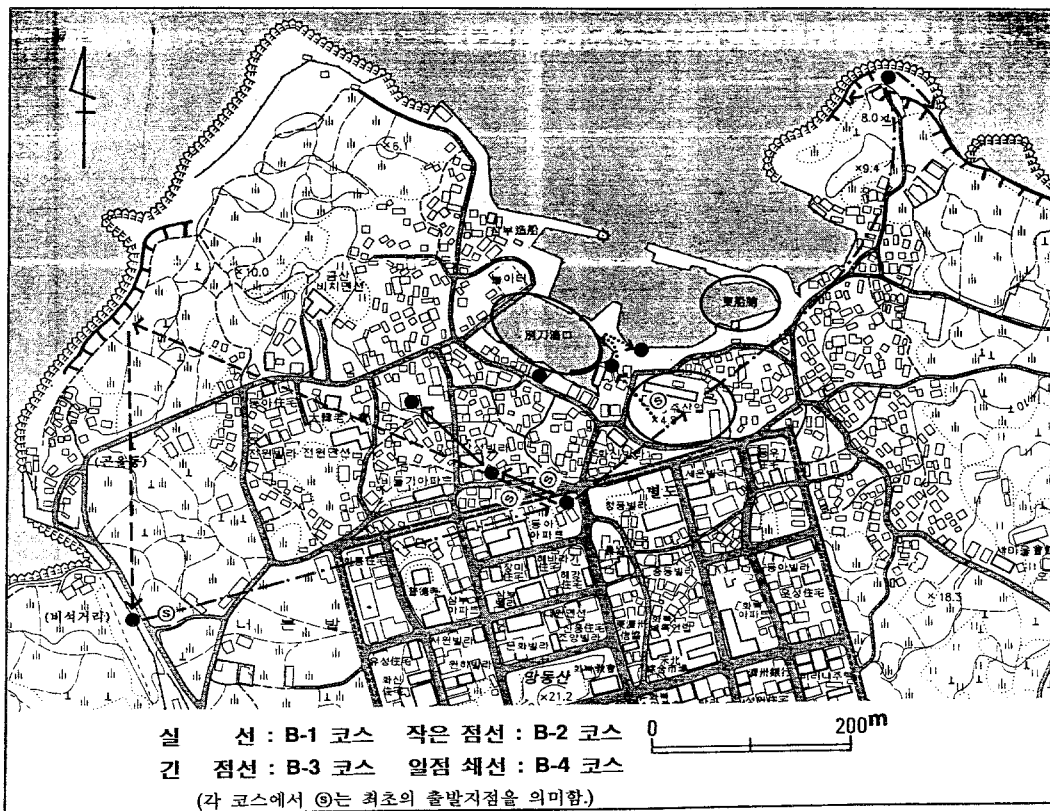
3개의 학습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앞서 제시한 코스와 비교하면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 그리고 이 코스의 아주 큰 특징은 3개의 학습대상이 서로 시대를 달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습대상별로 시간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 후에, 본격적인 학습활동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해장성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은 2곳이 있는데, 이 코스에서는 화북마을의 서쪽편 곤흘(을)동에 위치한 환해장성이다. 환해장성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썰물때라면 바닷가의 갯바위 위를 걸어 들어갈 수도 있다. 시간적으로는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각 25분씩 설정하여 전체 1시간 20여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효과적이다.

(8) B-4 코스[그림 4]

학습대상과 장소는 4군데로 비교적 적지만, 이동하는 거리는 가장 긴 코스(전체거리 약 1.1~1.2km)이다. 별도 연대와 환해장성은 거의 한 장소라 해도 좋을 만큼 인접해 있으나, A-4 코스나 B-3 코스의 환해장성과는 다른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여기의 것은 화북마을의 환해장성 2군데 중 동쪽편의 별도마을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별도 연대는 방어유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록 사용하던 시대는 다르나, 기능면에서는 환해장성과 거의 같으며 도내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설치되었던 38개 중 하나이다. 현재 지대석(地臺石)들만 남아 있다고는 하나, 연대 터는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 부근에서는 연대가 위치하는 곳이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다. 환해장성과 더불어 교실내의 수업에서 미리 학습해 두는 것도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연대 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효과적이다.<sup>22)</sup> 시간적으로는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00분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 B-1, B-2, B-3, B-4 코스



22) 연대 바로 아래에 살고 있는 고중근씨(남, 61세)는 어린시절 연대부근에서 놀던 일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주민중의 한사람이다. 지역자원인사로 참고해도 좋다고 생각되며, 자택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2. 교수-학습 도움 자료명과 입수 문제

교수-학습 도움자료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정보로서 가급적 상세한 설명과 함께 도표, 지도, 사진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망라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기서는 각 학습대상별로 참고할 수 있는 문헌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기로 하겠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과 관련자료들은 참고문헌 속의 페이지를 명시하였으므로, 그 속에 제시된 것을 복사하거나 현장에 지참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한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참고문헌에 대한 입수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의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문헌들은 부분적이지만 각급 학교로도 배포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 제시된 도서의 경우에는 주로 제주도내의 도립(제주도립, 우당)도서관과 시립(제주시립, 서귀포시립)도서관, 혹은 대학교(제주대학교, 제주교육대학교, 탐라대학교 등) 도서관 등을 이용한다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개발된 현장학습 코스는 어디까지나 제주시 에 위치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자면 제주시내의 경우에는 아래의 참고문헌이나 자료를 의외로 손쉽게 입수할 수도 있다.

<표 3> 학습대상별 주요 참고문헌과 관련 페이지

참 고 문 헌	㉓ 오성찬 외, 1989, 『유서깊은 옛 포구 화북리』(‘제주의 마을’ 시리즈), 도서출판 반석.
	㉔ 화북동운영위원회, 1991, 『화북동향토지』.
학 습 대 상 명	㉕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1, 『이원진 탐라지』.
	㉖ 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시, 1992, 『제주시의 문화유적』.
	㉗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6, 『제주시의 옛터』.
	㉘ 제주도, 1996, 『제주의 방어유적』.
	㉙ 제주시·제주문화원, 1996, 『제주시 옛 지명』.
	㉚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주시—』.
	㉛ 제주도, 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
	관련 참고문헌 및 관련 페이지
① 금돈지 포구	㉓-p.123./㉔-pp.42-43./㉕-pp.80-86./㉖-29./㉗-62./㉘-p.520./㉙-87.
② 김정 봉공비	㉓-pp.160-162./㉔-p.86./㉕-117./㉖-pp.301-302./㉗-p.83.
③ 해신사	㉓-pp.124-125./㉔-pp.75-79./㉕-p.102./㉖-pp.260-262./㉗-p.519./㉘-p.85./㉙-pp.310-311.
④ 화북진성	㉓-126./㉔-pp.67-69./㉕-p.87./㉖-pp.125-127./㉗-pp.65-71./㉘-p.84.
⑤ 해안 용천수	㉔-pp.224-225.
⑥ 김석윤 와가	㉖-pp.328-329./㉗-p.86./㉘-pp.405-406.
⑦ 김용일 와가	㉖-pp.330-331./㉗-p.86.
⑧ 이기숙 와가	㉖-pp.332-333./㉗-p.86.
⑨ 영물 머릿개	㉓-p.123./㉘-p.519.
⑩ 화북 비석거리	㉓-pp.126-127./㉔-pp.88-94./㉕-105./㉖-pp.289-290./㉗-pp.63-64./㉘-p.83./㉙-p.337.
⑪ 환해장성	㉓-pp.125-126./㉔-pp.69-70./㉕-pp.132-133./㉖-pp.83-84.
⑫ 별도 연대	㉔-pp.94-95./㉕-pp.75-76./㉖-pp.206-207./㉗-p.62./㉘-p.83.

[자료 : 상기 ㉓~㉛의 문헌에 의해 필자 작성]

<표 3> 은 위에서 제시한 각 학습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헌만을 간추려서 정리한 것이다.

### 3. 현장학습용 학습지의 작성 (사례 : 4학년 및 6학년의 경우)

현장학습 시에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개인별 혹은 그룹별로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학생들 모두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만져보고, 측정하고, 그리는 작업 등을 통하여 스스로 자기만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조사활동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동적인 사고와 실천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여러 가지 지식이나 사실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할 때, 학생 개인용 혹은 그룹용 현장학습에 대한 학습지의 형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현장학습용 학습지는 초등학교 교과서 상에서도 견학 보고서 혹은 조사(탐구) 학습지의 형식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그러한 형식에 준하여 위에 제시한 8개 코스 중 한 두 개를 선택해서, 초등학생들 수준에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의 지표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표 4>에 제시한 학습지의 작성 사례는 4학년의 경우로서, 위에서 제시한 대로 주로 교사의 설명과 함께 학생들의 관찰을 위주로 작성할 수 있는 사례이다. 그리고 여러 학습 대상 중에서 자신이 가장 흥미롭게 느끼는 것 한가지를 선택하여 학습지를 작성한다는 가정하에서, A-2 코스에서 맨 먼저 나오는 김석운 씨 댁 와가(기와집)를 선정하여 작성해 보았다.

두 번째로, <표 5>의 학습지는 6학년 경우로 학습대상 별로 세밀히 관찰한 사례를 나타낸 것인데, 형편상 학습활동은 학습결과만을 요약·정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는 개개인이 4개를 모두 조사할 수도 있으나, 학습량을 조절하는 차원이라면 4명이 한 개씩 조사한 후에, 종합적으로 한 장의 학습지에 정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학습활동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정리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학습지의 양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기록하고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바로 교사는 그 점에 유의해서, 현장학습시 한편으로는 유효 적절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최대한 활동(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



다.

<표 4> 4학년 현장학습용 학습지의 작성 실례(A-2코스의 경우)

일시 : 1999년 10월 10일		장소 : 화북1동 김 석운씨 대	날씨 : 맑음	이름 : 정 ○ ○	4학년 3반
학습 주제		제주도 기와집의 여러 가지 특징과 내부 구조 알아보기			
학습 목표		제주도 기와집의 외부 모양과 내부 구조를 말할 수 있다.			
준비물		노트(현장학습용), 연필, 스케치 북, 색연필, 지우개 등			
학 습 활 동	사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살림집에 대해 웃어른에게 여쭙어 본다.</li> <li>· 기와집에서 살면 편리한 점을 알아본다.</li> <li>· 자기가 사는 주변에서 기와집이 있는지 찾아본다.</li> <li>· 육지부의 기와집과 제주도 기와집의 차이점에 대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다.</li> </ul>			
	관찰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안거리와 밖거리)의 방향과 배치 모습</li> <li>· 지붕과 벽의 모양과 재료</li> <li>· 방수와 배치(방향)</li> <li>· 정지(부엌)의 위치와 구조</li> </ul>			
	관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한 기와집은 안거리와 밖거리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기와집인 안거리는 서쪽방향을 보고 있고, 초가집인 밖거리는 동쪽을 보고 있다. 현재, 안거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li> <li>· 지붕은 안거리가 기와이고, 밖거리가 새(띠)이다. 안거리인 기와집의 지붕은 네 면이 반듯한 모습이고, 밖거리는 둥근 모습을 하고 있다.</li> <li>· 벽은 모두가 현무암 돌을 사용하고 있는데, 돌과 돌사이에는 시멘트로 발라져 있다. 옛날에는 흙을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li> <li>· 방은 안거리가 큰구들(큰방), 작은 구들(작은방), 챗방으로 3개이고, 밖거리는 큰구들, 작은구들, 마루방으로 똑같이 3개이다.</li> <li>· 방은 마루를 사이에 두고 큰구들과 작은 구들이 마주보게 하였으며, 안거리의 챗방은 왼쪽편에 작은 구들과 앞뒤로 붙어 있다.</li> <li>· 안거리의 정지는 왼쪽에 있으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밖거리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정지대신에 마루에 입식 형태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li> </ul>			
관찰을 통하여 느낀 점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문간 앞에는 향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기와집처럼 상당히 오래되어 보였다.</li> <li>· 생각한 것 보다는 마당이 넓었고, 잔디가 심어져 있어서 걸어다니기가 편하고 좋았다.</li> </ul>			

[자료 : <표 3> 의 참고문헌 ㉔, ㉕, ㉖를 참조하여 작성]

<표 5> 6학년 현장학습용 학습지의 작성 실례(B-4 코스의 경우)

일시 : 1999년 11월 11일		장소 : 화북1동, 비 석거리/화북진성/ 별도연대/환해장성	날씨: 맑음	이름: 정 ○ ○	6학년 2반
학 습 주 제		제주도의 역사적 유적지들의 종류와 기능 이해하기			
학 습 목 표		제주도 역사적 유적지들의 종류를 이해하고 중요한 기능을 말할 수 있다.			
준 비 물		야외 노트(현장학습용), 연필, 스케치 북, 색연필, 줄자, 카메라 등			
학 습 대 상 별 조 사 결 과	비 석 거 리 (I)	① 13개의 비석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옛날에 제주로 왔던 관리들(목사 또는 판관)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것들이다. ② 비석들은 대부분 현무암으로 되어 있었고, 그 중에 한 개는 심하게 마모되어 글씨를 알아 볼 수 없었다. ③ 여기에 관리들의 비석이 많은 것은 당시 이 길목이 제주(목)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제주를 떠나면서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화 북 진 성 (II)	① 화북진성은 외적이나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돌로 둥그렇게 쌓아 올려서 만든 성이다. ② 지금은 많이 무너지거나 돌을 치워버려서 굉장히 낮은 곳도 많았다. ③ 당시는 동쪽과 서쪽에 성문이 있었다고 하며, 성안에는 많은 군인들이 살면서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건물들과 무고기가 있었다고 한다.			
	별 도 연 대 (III)	① 별도 연대는 적이 침입이 있을 때 연기나 불을 피워 제주성(내륙) 쪽으로 알리던 통신 수단이었다. ② 연대의 위치가 화북마을 안에서도 바다쪽으로 튀어나온 곳이어서, 감시하기가 좋다고 생각되었다. ③ 현장에 와보니 많이 무너져 버려서 일부분만 터가 남아 있었다.			
	환 해 장 성 (IV)	① 별도 연대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는데, 고려시대 말부터 만들어 사용한 해안 성이라 하였다. ② 친구들과 성의 높이를 몇 곳 재어 보았더니, 약 3~4m 정도 되었다. ③ 성들은 다듬거나 깎은 흔적이 거의 없는 것들이었고, 성의 아래쪽 부분은 아주 넓게 쌓아놓고 있었다.			
세밀히 조사한 결과, 소감 또는 느낌 쓰기		① 우리 학교에서 가까운 화북동에 많은 유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② 옛날 선조들이 남긴 유적들인데, 관리가 소홀하고 파손된 곳도 있어서 마음이 아팠다.			

[자료 : <표 3>의 참고문헌 ㉠, ㉡, ㉢, ㉣, ㉤, ㉥를 참조하여 작성]

덧붙여서, 현장에서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학습과정임에 틀림없지만, 학습량이 많다거나 관찰내용 혹은 조사내용이 너무 어려워서는 현장학습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 4. 개발된 현장학습 코스의 문제점

본 항에서는 개발된 현장학습 코스를 전제로 해서 학습 전단계나 혹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문제시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기로 한다. 그것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학습에서는 가능한 한 차질을 빚지 않아야 시간절약과 함께 학습과정 상에 충실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이 야외에서 상처를 입는 일 없이 모두가 무사히 귀교할 수 있는 것에도 관련된다.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형버스인 경우 마을 안길 쪽으로는 진입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장학습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리 코스를 선택함과 동시에, 어느 지점까지 버스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개발된 8개의 학습코스는 크게 중마을의 큰 길(대로변)과, 서마을의 비석거리 앞 2군데를 학습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는 바로 이 두 지점까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별 무리없이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일부의 학습현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수가 학습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개의 와가(기와집), 해신사 및 김정 봉공비의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따라서, 그룹별(또는 조별)로 교대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따라 활동하는 나름대로의 지혜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일부 코스에서 비포장 소로나 오솔길(부분적으로는 돌길 및 잔디밭길)을 걷는 구간이 있어 다소 주의를 요한다는 점이다. 가령, 환해장성(화북마을 서쪽)—해안 용천수 사이의 일부 구간, 그리고 별도 연대—환해장성(화북마을 동쪽) 사이의 일부구간을 들 수 있다<sup>23)</sup>. 그러나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며,

23) 2곳의 환해장성은 바닷가 쪽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서쪽의 환해장성(곤홀동)은 바로 바닷가의 갯가를 걸어가서 관찰할 수 있으며, 동쪽의 환해장성의 경우는 영물머릿개에서 새로 만든 포구 진입로를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 영물머릿개에서 약 2-3분 거리에

도시생활에 젖어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여름과 가을철에는 별도 연대나 환해장성으로 이어지는 일부 구간에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뱀에게 물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시에, 발을 헛디뎠다 해서 한사람이라도 외상을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와 학생간 그리고 친구들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겠다.

네 번째는 유적(지)과 문화재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문제이다. 이미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일부의 학습대상은 지방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는 하나, 제주도 차원에서 관리·보존상태가 그다지 칭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자칫, 유적(지)이나 문화재라는 점을 잊고, 무심코 밟고 서있는다든지 혹은 그 위로 기어오른다든지(특히, 김정 봉공비나 환해장성) 등의 행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학습대상 중에서 특히 환해장성의 경우는 1998년 1월에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도내에도 그다지 홍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화북 1동에 위치한 환해장성에는 아직도 경고문이나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문(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들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본고에서의 현장학습 코스는 근본적으로 사회과 학습에 대한 질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바로, 이점은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이기도 하다. 그것은 결국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 현장경험이 전혀 없는데다가 다른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지 못한 까닭이기 때문이다. 그 점은 연구자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으며, 나아가 현장학습을 더욱 알차고 가치있게 실행하는 일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일선 선생님들의 몫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

위치하고 있는데, 먼저 바닷가에 면해있는 공한지(연대동산) 쪽으로 들어간 후에, 다시 바닷가 쪽으로 위치를 바꾸어 관찰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 별도 연대보다 환해장성을 먼저 학습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인솔교사가 선택해야 할 것이다.

## V. 요약 및 결론

본고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 사회과 현장학습의 중요성에 비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을 인식하고, 일부지역의 학교에 한정되기는 하나, 현장학습 코스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일선학교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에서의 현장학습은 사회과 교과외의 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야외로 학습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교실내 수업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인력)과 경비를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요소를 최대한으로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보다도 더욱 활발히 현장학습을 전개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배경을 토대로 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는 지역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현장학습 코스의 개발을 시범적으로 시도해 본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취급한 학습대상들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같은 성격의 자료들이 대부분 지역 교과서(4학년 1학기) 상에 등장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현장감은 물론 친숙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대상들이다.

현장학습 장소로 선정된 지역은 제주시 화북마을(화북 1동)이며, 여기에 비교적 밀집·분포하고 있는 역사적 유적(지)과 자연적·인문적 환경요소 등 12개의 학습대상(자료)을 토대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코스화를 시도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장학습 장소의 코스화 과정에서는 3~6학년까지 학년별로 성격이 다른 2개의 코스로 나누어 개발하였으며, 이들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조건으로서는 ① 전체 학습시간 ② 학년별 학습내용과 난이도 ③ 학습량 ④ 이동거리 ⑤ 체력 ⑥ 효율성 등을 참고로 하였다.

두 개의 유형 중 A형 코스(A-1~A-4)는 각 학습대상마다 교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주로 관찰을 행하는 형태로 설정하였으며, B형 코스(B-1~B-4)는 교실수업의 심화과정이나 혹은 단독적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8개의 현장학습 코스는 현장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얻어낸 것이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주제나 학습대상의 선택여부 혹은 시간적 제약 등에 따라서 교사가 얼마든지 코스의 조절을 시도할 수 있다. 아울러, 개발된 코스에서 현장학습을 실천할 경우에 다소의 문제점도 나타난다. 그것들은 도로 사정이나 학습장소의 협소함, 안전사고 발생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끝으로, 다른 교과와 연계적이고 통합적인 현장학습의 구성체제를 피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최대의 단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향에서 교과간 연계 형식의 현장학습 코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동우, 1997, 「경주지역 문화재를 중심으로한 사회과 지역화 학습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p. 1-123.
- 교육부, 1997, 『초등학교 교육과정』 (제1997-15호, [별책 2]), 교육부.
- 권오정, 1985, 「사회과의 학습형태」 (권오정 외, 『사회과교육(I)』,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415p.), pp. 142-159.
- 권이종, 1996, 「현장학습의 실태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p. 1-126.
- 오성찬 외, 1989, 『유서깊은 옛 포구 화북리(‘제주의 마을’ 시리즈 ⑨)』, 도서출판 반석.
- 오영태, 1996, 『사회과교육론』, 형설출판사.
- 이 찬, 1975, 「지리과 학습지도의 이론과 사례」 (이 찬외, 1975, 『지리과 교육』, 한국능력개발사, 352p.), pp. 105-160.
- 정병기 외, 1995, 『신간 사회과교육론』, 교육출판사.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1, 『이원진 탐라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시, 1992, 『제주시의 문화유적』, 제주대학교 박물관·제주시.
- 제주도, 1996, 『제주의 방어유적』, 제주도.
- 제주도, 1998, 『제주의 문화재』 (증보판), 제주도.
- 제주도교육청, 1995, 『우리 고장 현장학습 프로그램』, 제주도교육청.
- 제주시, 1998, 『제38회 통계연보(1998년도)』, 제주시.
- 제주시, 1988, 『제28회 통계연보(1988년도)』, 제주시.
-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6, 『제주시의 옛터』,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주시—』,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 제주시·제주문화원, 1996, 『제주시 옛 지명』, 제주시·제주문화원.

정광중

- 최창석, 1994, 「향토 단원의 현지 학습 방법」,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지리교육전공)석사학위논문, pp. 1-99.
- 하태기, 1992, 「향토학습을 통한 향토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p. 1-120.
- 화북동운영위원회, 1991, 『화북동향토지』, 화북동운영위원회.